

이 “시대의 표적”과 하나님중심 세계관

이원설(史博, 숭실대학교재단이사장)

I. 이 시대의 “표적?” ---로 13:11; 마 16:2-3

J.H. Hexter-- “혼돈;” Pitrim Sorokin-- “위기;” W.H. Awden-- “불안;”
Peter Drucker-- “단절;” John K. Galbraith-- “불확실성”

II. 다니엘의 예언--다니엘 12:4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1. “빨리 왕래하며” --G.M. Trevelyan--교통혁명; 통신혁명
지난 반세기동안--AT, IT, BT, ST, NT
2. “지식이 더하리라” --Francis Bacon, Alvin Toffler
D. Price, Robert Hilliard, James Appleberry, Bill Gates
3. 역설--무지혜시대--잠언 4:7; 16:16; 14:5; 14:6; 열왕기 상 3:9
Information Glut; Grasham's law, 지식이 악의 도구
PANTS형 인간

III. 하나님중심 세계관의 상실과 회복--기독교 교육

1. 인간-- “살아 있는 영혼” 창 1:27-28
“마음의 눈” --자아관, 가정관, 자연관, 사회관, 시명관
2. 범죄로 어두어진 心眼--利己의 눈--창 5-10
Arnold Toynbee의 고등종교들--불교의 사례
3. 주님의 寶血--Blessing-Blessen (피)
요한 1서 1:7; 눅 4:18
4. 믿음으로 주님 영접--요 3:16--심안의 開眼
5. 오늘날 한국교회 지도자들의 회개

IV. 하나님중심 세계관의 교육과 축복

1. “세대를 본받지 말고” (로 12:1-8)--Mass시대의 자아상실
 - A. “분별하도록” -- “은사가 각각 다르니”
 - B. Who? What?의 Vision-- “Be ambitious for Christ
 - C. How--Roadmap
 - D. Vision을 기록하여--하박국 2:2

2. 신앙과 학문의 연계

- 하나님중심 세계관과 과학--Henry Frankfurter
- 하나님중심 세계관과 정치--Harvy Cox
- 하나님중심 세계관과 경제--Max Weber
- 하나님중심 세계관과 문화--Albert Dondyne
- 하나님중심 세계관과 역사--Reinhold Niebuhr

3. “먼저 구하라” 마 6:33; 로 14:17-의 삶

- “아니요”
- “오직 성령”
- “의, Shalom, 희락”
- “이 모든 것” 의 약속--수,부, 강령, 유희덕, 고종명--사례들

Part One: 이"시대의 표적"--로마 13:11; 마태 16:2-3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마16:3)

오늘 날,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큰 폭으로 가속하는 역사적 변화에 압도당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종다양하고 다 차원의 변화가 세계를 뒤흔드는 사건들과 함께 지구의 모든 곳에서 동시적으로 발생하고 빠르게 이어지는 방송전파를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이란에 대한 군사적 공격 이후 세계는 전례를 찾아 볼 수 없던 혼란 속의 분쟁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만일 이 시대에 가장 눈에 띄는 표적을 우리가 뽑아내고 이름을 부쳐야한다면, 무엇이라고 불러야할까요? J. H. 헉스터는 "혼돈의 시대"라고 불렀고; 피트림 소로킨은 "위기의 시대;" W.H. 에웨덴은 "불안의 시대;" 피터 드러커는 "단절의 시대;" 그리고 존 K. 갈브레이트는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불렀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사는 세계의 정세는 혼돈, 위기, 불안, 단절, 불확실성이 꼬리를 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어떤 지식인도, 아무리 명쾌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도 우리의 장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예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선지자 다니엘이 주전 6세기에 오늘날 세계에서 일어날 사건들을 우리 시대에 가장 명확한 두 징조로 예견한 성경을 우리가 읽는다는 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다니엘 12:4)

I. “빨리 왕래하며”

다니엘 선지자는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 할 것을 예언했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 사람들은 급속하게 변화하는 사건들을 따라잡기 위해서 이리 저리로 정신없이 뛰고 있습니다. 1962년에 작고한 영국의 유명한 역사학자 G.M. 트레벨얀은 오늘날의 역사적 변화의 속도는 고대시대에 비해 100배나 빠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만일 그가 오늘 다시 살아난다면 무어라 말하겠습니까? 참으로 지난 반세기 동안 과학-기술 분야에서 일어난 혁명적인 변화는 실제로 양과 질에 있어서 역사가 시작된 이래 1945년까지 일어났던 것과 맞먹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원자력시대, 정보화 시대, 생물공학시대, 우주개발시대, 그리고 나노기술시대 등이 지난 반세기동안에 일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역사변동의 가속화를 측정할 수 있을까요?

「세계의 현실과 경향」이라는 책에서 존 맥하일은 교통-통신의 혁명적 가속화현상을 사례로 들고 있습니다. 말은 1829년 기차가 영국의 조지 스티븐슨에 의하여 발명될때까지 가장 빠른 운송수단이었습니다. 이에 비해 오늘날 초고속 비행기의 속도는? 1844년 사무엘 모르스가 전보를 발명할 때까지 인류가 가진 가장 빠른 통신수단은 봉화였습니다. 이에 비해 오늘날 우리가 평상시 사용하는 광통신-인터넷통신의 속도는? 이렇게 나날이 가속화하는 변화는 삶의 모든 영역--정치, 경제, 교육, 교육, 문화등등--에서 동시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오늘날의 역사변동을 이렇게 가속화하는 것일까요?

II. "지식이 더하리라"

그 해답은 다니엘이 말한 “지식이 더 하리라” 라는 말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시대의 두 번째로 분명한 징조는 지식의 급속한 증가입니다. 「용감한 신세계 안에서」라는 책에서 윌리엄 노케는 유례가 없던 역사적 변화의 빠른 속도에 대한 해답을 정보기술혁명에서 찾았습니다: 컴퓨터의 결합, 광섬유와 인터넷 네스케이프(Nescape)를 통해서 우리는 언제든지 어디에서나 WWW(World Wide Web 세계전역통신망)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앞에 있는 길에서」라는 책에서 마이크로 소프트의 빌 게이츠는 "정보가-당신의-손가락-끝에-있는-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고 쓰고 있습니다. 1960년대 초 프릿츠 맥렘은 우리의 시대를 정보시대라고 불렀습니다. 다니엘 벨은 「후기-산업사회의 도래」라는 책에서 "지식사회"의 출현을 상술했습니다. 모든 나라들은 "정보 고속도로"를 설치하고,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강화하고, 지식을 널리 보급하는 교육 시설로 지식을 증가시키는 장치를 했습니다. 학생들은 더욱 많은 지식을 얻기 위해 열심히 공부해야만합니다. 실제로 지식이 예배를 받는 우상이 되었습니다. 과연 다니엘의 예언은 오늘에 와서야 현실화 되었습니다. 1963년에 출간된 「바벨론 이후의 과학」에서 D.D 프라이스는 "인류가 가진 지식의 총화는 매 15년마다 배가한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그 증가속도는 불과 5년이라고 합니다.

III. "무지혜 시대"

다니엘 선지자가 예언한 것과 같이, 세상은 예전에 볼 수 없었던 증가하는 속도로 변화하고 있어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게 만듭니다. 다니엘이 예언한대로, 지식이 엄청나게 증가하여 역사적 변화의 실질적인 원천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예언은 지식이 증가하는 폭과 똑같이 "지혜"가 증가할 것이라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지식의 증가가 이 땅에 낙원을 가져오는 것이라고는 결코 말씀하지 않습니다. 대신, 성경은 지혜의 절대적인 중요성을 항상 강조합니다: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잠언 4:7);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잠언 16:16); "지혜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잠언 24:5); "명철한 자는 지식 얻기가 쉬우니라"(잠언 14:6).

그렇다면 지혜는 어떤 것입니까? 세계 역사상 가장 지혜로웠던 왕인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라고 간구 했습니다 (열왕기상 3:8-9). 높은 교육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선과 악을 어떻게 분별하는 지를 알지 못합니다. 소크라테스도 지혜는 지식을 옳게 사용하는 법을 아는 지능이라고 말했습니다. 배운 사람들 중 일부는 그들의 지식을 감옥에 가서야 결과를 아는 악을 행하는데 사용합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정치-경제상황이 노출되었듯이 지식이 악의 도구가 됨으로서 앞날을 어둠, 불안, 부조리, 혼돈, 불확실성의 먹구름 속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미래학자인 존 네스빗은 오늘날을 “세계적인 역설의시대” 라는 용어로 설명

하고 있습니다. 의미론적으로 말하면, 역설은 자체적으로 상반되는 듯한, 믿을 수 없어 보이는 또는 추상적인 듯하지만 실제로 진리가 사실로 있을 수 있는 말입니다.

오늘날 가장 현저한 현상은 지식이 급속히 증가 할수록 지혜가 감소하는 역설입니다. 많은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우둔하고 바보 천치가 되는 현상이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도 높은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옳고 그른 것을 분간하질 못할까요? 우리가 볼 수 있는 문제점은 ①"정보의 공급과잉"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정보의 홍수가 우리에게 퍼부어 지기 때문에 이 모든 정보, 지식을 모두 흡수하려는 사람은 정신적으로 이상해집니다. ②"그레샴의 법칙"이 작용하는 것입니다. 즉 음란물과 같이 무가치하고 쓸모없는 정보가 더욱 쏟아져 나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③"정보의 불의의 사용"입니다. 오늘날, 정경유착이나, 911 비극적 사태에서 본 것과 같이 지식은 "악의 도구"로 사용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세계가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축소되어 "지구촌화 할수록 너무나 많은 역설현상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는 하나가 될수록 분열합니다"는 역설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1945년 UN이 창립될 당시 그 회원국 수는 51개였습니다만 오늘날 그 수는 200여개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네스빌은 21세기 말까지에 국가의 수가 1000여개가 될 것이라고 예견하고 있습니다. 민족간, 부족간, 종교간의 분쟁의 격화로 세계는 암담한 현상을 노정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각 나라 안에서는 빈부의 격차확대로 인한 가진자와 못가진자간의 갈등은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계에는 전 인구의 1%에 해당하는 부유한사람들이 57%의 부를 가지고 있으며 8억은 배고픈 허기를 채우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빈부격차는?

Part Two: 靈眼의 開眼과 하나님중심세계관

I. 生靈의 하나님중심세계관 상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지혜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의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입은 생령 곧 사라있는 영혼 (a living soul--an embodied spirit)입니다. (창 1:27; 2:7)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창 1:28)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를 포함한 모든 생물을 다스리기 위하여는 사물을 바르게 보고 판단하는 "눈"을 하나님께서는 주셨음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피조된 "생령"으로서 그는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는 肉眼, 사물을 주변사정과 연계하여 인지하는 智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헤아리는 靈眼을 모두 향유했음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지는 인생, 가정, 사회, 정치, 도덕, 예술, 자연등을 보는 마음의 눈을 세계관 (Weltanschauung)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고 자연을 다스리는 능력을 부여받은 아담과 하와는 모든 것을 하나님중심으로 보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지혜 곧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시편 111:10은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잠언 1:7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뜻을 따라 자연을 "다스리"는 삶을 영위할 때 그들의 육안과 지안으로 사물을 바르게 보는 지혜 뿐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헤아리는 영안의 분별력도 행유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인간이 어찌하여 하나님이 주신 영안을 상실한 영적 장님이 되어 무지해인이 되었을까요?

에덴동산에서, 마귀는 하와에게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된다는 말로 금단의 과실을 따먹도록 유혹했습니다(창세기 3:5). 하와와 아담이 하나님의 뜻을 배반하고 그 금단의 열매를 따먹은즉 사탄의 말대로 “그들의 눈이 밝아” 졌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들의 영안이 더욱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었다는 말일까요?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 죄를 지은 결과 그들이 본 것은 자기들의 “몸”이었습니다.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습니다. (창 3:7) 즉 그들의 “밝아진 눈”을 서악을 바르게 판단하는 영안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유리한가? 불리한가?를 빠르게 알아채는 잘 못된 마음의 눈만이 밝아졌음을 의미했습니다.

오늘날 현대인의 특징은 밝은 利己의 눈입니다. 사물을 보거나 대인관계에서 자기에의 이익이 될 것과 불리할 것의 분별을 순간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자기 이외의 주변 사람들의 이익을 돌보는 눈을 상실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형제들과 부모님들의 안위도 돌볼 수 없는 近視眼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사물을 바르게 판단하는 능력은 완전히 상실한 영적 盲人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불순종한 결과로 사람은 영적으로 장님이 되어 선을 악과 구별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온 몸이 어둠”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마태복음 6:23). 자기의 이익밖에 모르는 영적 맹인들의 세계에서는 갈등과 분쟁이 지속됩니다. 이기는 “밝은 눈”은 부부간의 갈등도 심화하여 가정이 파멸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영안을 다시 뜰 수 있을까요? 불교를 위시한 모든 고등종교의 가르침도 실에 있어 사람의 상실된 영안을 회복하는데 있습니다. 그리하여 참된 지혜로운 삶을 되찾으려는데 모든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들 종교들의 공통점은 고행을 통해 모든 욕심을 버리고 자기 수양으로 영안을 회복하려고 노력합니다. 수도사가 아닌 범인들로서는 시해할 수 없는 고난의 길입니다.

특히 오늘날 지혜를 도외시 한 채 각종 지식만을 학생들의 두뇌에 무조건 주입하는 이른바 주입식 교육은 젊은이들의 인간성을 말살하며 그들의 이기심만을 조장하여 사회갈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각종 이익집단들 사이에는 쟁투가 가일층 악화되고 지구촌은 민족간, 국가간, 종교간의 분쟁으로 나날이 얼룩지고 있습니다. 헌팅톤 (Samuel Huntington)이 예견하는 문명충돌이 “아마게돈전쟁”으로 이어질 조짐조차 보이는 것이 이 시대의 징조입니다.

II. 주님의 寶血 (Blessing--Blessen-blood)로 하나님중심세계관의 개안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주셨습니다(누가복음 4:18). 즉 사람은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면 아담과 하와가 금단의 과일을 따먹음으로서 상실했던 영안을 회복하여 세상을 바르게 보고 사물을 옳게 판단하는 참된 지혜를 가질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내가...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하고,”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으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함이라” 라고 말씀하셨다. (요 9:39; 12:46)

사람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때, 주님께서는 선이 악과 다른 점을 분명히 볼 수 있는 하나님-중심의 세계관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지혜를 바탕으로 지식을 “적절하고 옳게” 사용하는 방법을 아는 것입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진정 “지식의 근본”임은 물론 “지혜의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잠언 1:7; 시편 111:10). 골로새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취어 있느니라” 고 말했습니다(골로새서

2:3). 사람이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을 때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을 밝혀 주시는 것입니다.

실로 영어의 Blessing의 어원 Blessen은 Blood를 뜻하듯이 주님의 보혈은 만복의 근원입니다. “길ियो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이 내안에 거하시고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주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면은 “너희가 내 일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요 14: 1-27)

Part Three: 하나님중심세계관과 "이 모든 " 복을 받는 축복

1. 가장 귀한 것을 “먼저 구하는” 지혜와 약속된 축복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마 6:33)

사람은 구하는 존재입니다. 동물도 먹을 것, 거할 곳 등을 구하지만 사람은 구하는 차원이 너무나 다양할 뿐 아니라 욕심이 끝이 없습니다. 우리가 식생활에서 구하는 음식의 종류는? 건강을 위하여 구하는 보약의 종류는? 옷을 구하는 종류는? 지적으로 구하는 지식의 종류는? 사회적으로 인간관계에서 구하는 것들의 종류는? 최근 미국의 여론조사는 한 미국인이 일생동안에 구하는 것들을 종합하면 약 5000가지가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매일 매일의 생활에서 구하는 것들도 모두 소유할 수는 없습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항상 가지고 싶은 것들에 우선순위를 놓아서 “먼저 구할 것”을 먼저 구하려고 노력합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일주일 동안에 먼저 구할 것, 한달동안에 먼저 구할 것, 일년동안에 먼저 구할 것을 미리 정하고 준비된 마음으로 그것을 획득하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그러면 우리 각자가 일생을 통하여 가장 먼저 구하여야 할 것이 과연 무엇?

우리 조상들은 사람으로서 가장 귀하게 여기면서 구하여야 할 것들을 다섯가지 福의 개념을 五福 “壽,富, 康寧, 攸好德, 考終命”의 범주로 요약하고 “身言書判”의 교육으로 五福을 추구하도록 가르쳤습니다. 이런 견지에서 보면 우리의 전통사회에서 제일 귀하게 여기고 구한 것은 壽 즉 건강으로 장수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비해 오늘날 우리나라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가장 간구하는 것은 富입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궁극적 목적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목적은? 권계나 정계에서도 부정과 부패가 얼룩지는 원인은? 결국 부를 가치의 최고위에 놓는 개인이나 나라가 잘되는 사례를 못 보았습니다. 소련을 위시한 공산국가들의 말로를 봅시다!

이에 견주어 볼 때 우리 성경의 말씀은 근본적으로 차원을 달리합니다. 성경에서의 복의 개념은 우리말의 복과 천양지 차이가 있습니다. 영어의 Blessing의 어원은 Blessen (blood) 곧 “피”를 뜻합니다. 즉 그리스도의 피로서 속죄함을 받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이 세상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이 모든 복”이 약속된다. 우리주님께서 직접 약속하신 몇 가지 만 들어보면 ① “너희가 내안에, 내가 너희 안에”; ② “나를 믿는 자는 나의 일을 저도 할 것이요; ③보혜사 성령아 ” 모든 것을 가르치고; 그리고 ④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는 약속 속에서 주님의 성령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십니다.(요14:6-27) 길ियो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안에서, 성령의 가르침에 따라 많은 일을 수행하면서 하늘나라의 평안을 맛보면서 사는 축복이 약속되어있습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은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됨으로서 ①長壽하게되며, ②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재능”을 극대화하여 열심히 일함으로서 富를 누리며; ③항시 康寧한 힘으로 전진하여 삶을 크게 진작하며; ④攸好德함으로서 사람들의 칭송을 받아 “목자와 같은 지도자”되며; ⑤세상을 떠날 때도 考終命의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여” “독수리 같이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향유할 수 있습니다.(시92:14, 103:4)

즉 참된 축복을 향유할 수 있는 길은 우리조상들이 주장했던 교육을 통하여 身言書判을 익히는 것 뿐 아니라 그런 차원을 훨씬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실행하는 信行一致의 삶입니다. 사도바울은 “하나님의 나라”의 보다 구체적 모습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로14:17)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에 모시고 사는 그리스도인은 ① “먹는 것과 마시는” 경제적으로 풍요한 삶을 구하는데 삶의 목표를 두지 말고; ②오직 성령의 가르침에 따라 뜻을 세우고(시 20:4); ③ 의로운 삶(아모스 5:24), 평강한 삶(빌2:7), 희락의 삶(살전5:16-18)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 생활하는 삶을 스스로 측정하는 하나의 방법은 최소한 “십일조”를 드리고 있는냐를 자문자답 하는 것 입니다. 수입의 십일조 뿐 아니라 시간의 십일조, 능력의 십일조, 지식의 십일조로 하나님 나라의 신장을 위하여 드리는 삶이 요청됩니다.(말 3:8-10)

II. 하나님중심세계관으로 나라가 발전하는 축복

A. 지혜-우선순위를 바르게정하는 분별력

“정보화 시대”는 해결책보다는 문제를 더 많이 일으킵니다. 많은 지성인들이 우리에게 경고하는 대로, 지혜가 없는 지식의 폭발은 우리의 세계를 더욱 혼돈과 걱정이 꼬리를 물고, 더욱 불확실하게 만듭니다. 그렇지만, 危機라는 말은 “危險과 機會”의 합성어입니다. 좋은 기회는 危機의 때에 발견됩니다. 정보시대의 도래로 야기된 위기는 세계를 정신적 황무지(spiritual wasteland) 사람들로 하여금 지혜의 참된 원천을 과거 어느 때보다도 만들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못된 샤마니즘적 福, 유교적 五福개념을 일소하고 주님의 보혈의 축복으로 信行一致의 삶을 일치단결하여 살아가면 우리나라도 의로운 나라, 평강의 나라, 희락의 나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통일조국을 위한 민족적 비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민족이 성서적 세계관을 가지고 바른 자연관, 인간관, 경제관, 사회관, 예술관, 가정관을 정립하면 나라의 놀라운 발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구체적 사례를 간단히 살펴봅시다.

(1) 하나님중심세계관과 정치발전

오늘날 “사회의 정치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시점에서 세계에서 각 나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자기 나라에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것입니다. 가능하다면 그리스를 제외한 대부분의 고대 문명국들은 민주적인 기관을 개발하는데 실패했습니다. 대신 왕권을 신성한 것으로 만드는 정치를 선호했습니다. 그리스 사람들마저도 민주주의 정치를 개발하는데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극소수에 해당하는 사람들만이 정치적 절차에 참여 할 수 있었기 때 문입니다.

「세속적인 도시」라는 책에서 하비 콕스는 출애굽 사회가 민주주의의 진정한 표본이었다고 지적합니다. 모세 율법은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강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은 “생

명과 자유와 행복 등을 추구할 빼앗길 수 없는 권리”를 부여받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믿음에 기초한 것이었습니다(창세기 1:17). 그것은 본질적으로 계약이었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책임을 수행할 의무를 갖고 있던 한편 하나님께서도 자신이 한 약속을 성취하실 의무를 갖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선물인 사람의 자유의지가 그 언약의 범위 안에서 작용하게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언약의 개념이 계약적 사회-정치 이론을 일으키는 길을 닦은 것입니다. 호베, 로키와 루소의 글들에서도 보이는 것과 같이--“사회적 계약” 이론은 현대 민주정치의 중추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와 문화」에서 리차드 니버는 하나님-중심의 세계관은 사람의 마음에 역사적인 양심을 낳고 양육시켰습니다. 역사적인 시간은 유희적이 아니라 성경에서 보는 것과 같이 선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역사는 과거의 사건들을 단순히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닙니다. 역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을 계시하셨으며 사람은 하나님의 소명에 어떻게 응답하였는지를 기록한 것입니다. 역사는 사실상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현대의 모든 역사적인 사고들은--헤겔주의와 마르크주의까지도--그리스도인의 역사관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헤겔과 마르크의 역사 사상에 깔려 있는 시간의 구조는 실제로는 어거스틴의 것과 같은 것입니다.

(2) 하나님중심세계관과 경제발전

막스 웨버의 기념비적인 저서인 「개신교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 1905년 출판된 이래 현대 경제적 사고의 발생에 관한 기독교의 영향이 토론 되어왔습니다. 어떤 윤리와 정신적인 힘이 현대경제제도를 창조하였나? 웨버는 사람의 이기심과 탐욕과 소유충동 그 자체로는 현대 경제제도를 만들어 내질 못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웨버는 칼빈주의의 예정론 신앙에서 결정적인 단서를 찾아내었습니다. 직업은 하나님의 “소명”이다. 사람이 자기의 사업을 하나님의 소명으로 할 때 자기는 단순한 청지기--하나님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청교도 정신의 일들이 이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중심의 세계관은 전통적인 사회에서는 예외 없이 천하게 여겨졌던 노동을 포함하여 모든 종류의 일들을 신성한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3) 하나님중심세계관과 과학발전

현대 과학적인 사고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하지만 역사적으로 말해서 우리는 과학발전의 눈에 보이는 공헌은 고대 모든 문명에 그 공을 돌려야만합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옛 문명 어느 것도 과학 혁명의 정신적인 토대는 놓질 못했습니다. 헨리 프랑크푸르트의 저서 「철학 이전」은 당시 사람들과 자연과의 관계는 “나와-신”의 관계였지 “나와-그것”의 관계는 아니었습니다. 이는 사람들이 자연을 숭배의 대상으로 여겼지 이해의 대상으로 여기질 않았다는 말입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성경은 사람을 자연의 두려움으로부터 자유케 하였습니다. 창세기1:1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해와 달과 별들과 산과 강과 동물들이 신이 아니므로 신비스런 신의 능력이 내재하질 않습니다. 자연의 힘은 숭배되어서는 안 됩니다. 막스 웨버에 의하면 자연은 신성한 것이 아니고 그것의 능력도 벗겨져 나간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창세기 1:28).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기 위해서 사람은 자연의 힘을 이해해야만했고 거기서 우리는 과학적인 생각의 실질적인 기원을 찾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가정과 관찰과 재생의 필요 속에 현대 과학적 생각의 원천이 있는 것입니다.

(4) 하나님중심세계관과 역사발전

「그리스도 안에서와 그 시대」라는 책에서 오스카 쿨만은 우리의 시간인식의 중심으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시간의 구분을 우리는 반드시 만들어야합니다라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보다는 더욱 명확한 “중심점” 이 지상에서 그리스도의 시간입니다. 우리 주님의 역사적인 삶이 B.C (주전)와 A.D.(주후)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역사의 초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과거의 중심에 모실 때 지나간 역사의 날들이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장래 계획의 심장부에 그리스도를 모실 때 우리는 우리의 사회적 환경을 개선할 수 있고 역사를 옳은 방향--하나님을 향한 방향으로 인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 나라가 그들의 삶의 표준--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그리고 그와 같은 삶의 표준을 개선하는 나라로 발전하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그리스도인들에게는 지금이 복음의 “좋은소식” 을 땅 끝까지 선포할 최고의 때입니다. 전 세계에 걸쳐 사람들을 괴롭히는 모든 문제들이 성경적 세계관으로 실체를 볼 때 다 해결될 것입니다. 국민들이 지혜와지식이 결합된 것에 바탕을 둔 참된 하나님-중심의 세계관을 가슴에 끌어안는 나라마다 발전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의 기도를 매일 드리면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마가 15:15)하신 주님의 大使命을 위하여 매진할 때 하늘나라의 축복이 금생·내생에 충만할 것입니다.

저자 : 전 경희대 부총장
전 한남대 총 장
현 송실대 재단이사장

현 한국기독교학교연맹 이사장

*** 저서중 3권: *Beyond Ideology, The Christian Worldview and Historical Change, Write the Vision*은 미국의 대학교와 신학교들에서 교재로 채택***